



시간 여행의 축복

신정초 6-8 채윤제

삭막한 도시의 대형 전광판에는 여전히 장례식장 광고가 있었다. 오늘은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딱 8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할머니, 할머니!”

나는 소리 지르면서 병실로 뛰어 들어갔다. 1년째 병실에 누워 계시니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았다. 토사구팽이었다.

“돈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더니.”

병실에는 할머니와 나, 둘밖에 없었다. 친척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죽음은 고요하지만, 장례는 그렇지 않단다. 죽음이라는 친구가 곧 올 것 같구나.”

그때 나는 어렸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내 과거... 과거를 돌아보고 싶구나.”

일주일 뒤, 장례식이 치러졌다. 할머니의 말처럼 친척들은 먹이를 찾는 날과리처럼 모여들었다. 친척들이 유언장을 들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귀를 막았다. 그 후로, 할머니의 소원은 곧 나의 소원이 되었다. 할머니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논술학원에 도착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책을 꺼내 들고 숙제를 했다. 수업은 한 시간 뒤였다. 시간 안에 숙제를 다 하려면 빠듯했다. 나는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내가 결정해서? 아니면 미래의 나를 위해? 그리고 흘러 읽었던 논술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현재는 미래가 과거가 되어야 생길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인상 깊지 않았지만, ‘지금의’ 나에게서는 매우 중요했다. 내가 할머니의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는 미래가 과거가 되어야만 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백 년을 논의한 과학자들이 우스웠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내 과거... 그리고 내 미래...’

환한 빛이 나를 감쌌다.

내 주위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주위의 풍경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 SF소설에서 읽은 그대로였다. 1960년대의 한국 같았다. 아이들은 한 여자아이를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었다. 할머니였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내 가슴에 박히는 듯했다. 나도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또 빛이 나를 감싸더니 주변 풍경이 이번에는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할머니는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후 공부를 열심히 했다. 또 시간이 멈췄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중학생 정도 돼 보였다.

“엄마! 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끄러워! 넌 전문직을 꼭 가져야 해!”

또 시간이 흐르고, 이번에는 묘지에서 멈추었다.

할머니가 묘지를 텅 빈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나 보다. 남은 인생은 마치 드라마처럼 흘러갔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엄마, 외삼촌, 이모를 각각 낳았다. 기계적인 삶이었다. 할머니는 열심히 일해서 남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자식들은 키워 준 은혜도 모르고 돈을 달라는 소리만 했다.

또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는 병실에 누워 계셨다. 입원한 지는 얼마 안 되어 보였다. 친척들은 또 유언장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

“왜 나는 과거를 몰랐을까? 원래 고인처럼, 과거도 잊혀지는 걸까?”

이제 할머니는 나를 앞에 두고 말하고 있었다.

“죽음은 고요하지만, 장례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한 인간의 죽음이, 이토록 조출하단 말인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할머니는 ‘좋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삶’을 누리지는 못하였다. 할머니는 이런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라면 다르다. 아무리 돈이 많든, 명성이 높든,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같이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 삶이란 무엇일까? 또,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문제는 나를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나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맞서 싸우지 못했다. 부모님이 시키는 학원을 다니면서도 왜 그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몰랐다. 달렸지만, 도착점이 무엇인지 몰랐고, 옆의 풍경은 보지 못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곧바로 학원에서 뛰쳐나왔다. 앞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달릴 것이다. 가면서 풍경도 감상하고, 도착점을 바꾸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다. 할머니는 어쩌면 나라도 이런 인생을 살라고 조언해 주신 것 같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나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겠다. 할머니에게 무척 고마웠다. 그 이후로 시간 여행은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일생에서 한 번만 가능한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의 도착점을 설정했고, 지금 당장 미래는 몰라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 일 뒤로, 나는 열심히 살았다. 커다란 산도, 사막도, 비포장도로도 있었지만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버텼다. 지금의 나는 병실에 누워 있다. 나의 자식과 친구들도 오지 않는다. 오직 손자 한 명만이 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 과거를 보고 싶구나.”

내 과거를 본다면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느새 길의 끝자락에 닿았다. 밑에는 끝없는 절벽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담하게 밑으로 뛰어들었다. 절벽은 끝이 없었다. 어느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질문을 했다.

“너는 일생에 한 번의 시간 여행, 그로 인해 무엇을 얻었는가?”

“제 인생의 도착점, 길을 설정했습니다.”

“삶에 대한 후회는 있는가?”

“저는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고 싶은 부탁이 있는가?”

“모든 사람, 아니면 저의 손자만이라도 시간 여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네.”

절벽의 끝이 보였다. 절벽에 몸이 닿은 것과 동시에 내 몸은 산산이 부서졌다. 내가 살아온 삶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